



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76화>

굵은 나무가 허리를 구부려서 절을 한다(華嚴經第五十九卷)

10절 :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사만 사천의 의인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진도함
5) 밀실에 입문하다
6) 밀실에서 일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자난호에 이어서)

“저 새끼, 저 도둑놈의 새끼, 전기세 주라고 20만원 주었는데 저 새끼가 도둑질을 해먹고 시치미 떼고 있어!” 하면서 도둑놈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실에는 홍석전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십여 년이 넘게 오랫동안 전기세를 내왔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밀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전기세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탄 사람과 같으면 ‘무슨 이긴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생사함을 잡느냐?’ 하고서 심중판구 도망쳐나가겠지요, 일곱째 천사는 분명히 해와 이긴자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디다.” 하고 말씀드리면 ‘이유변명죄’가 되고, ‘이 결백을 알아주지 않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가 오히려한 몰라도 이 사람을 영적으로 키우고, 이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해와 이긴자께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섬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섬섬한 음란죄’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의복도, 몸과 마음과 생명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니 도둑놈이 맞습디다. 이 시험을 이길 것을 아시고 시험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품으니, “폴도 보

기 싫으니 나개! 이 도둑놈의 새끼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쳐 나올 때, 탄 형제들은 ‘조사장이 잠잠은 줄 알았더니 도둑질을 하였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밖을 나서니 뒤에서 해와 이긴자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사장이 잘 이겼다는 뜻으로 암시하는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金蟬脫殼(금선탈각): 꼬투리 속에서 허물을 벗고 나온 굴됁이는 금빛 날개 달린 매미가 되어 이슬을 먹으면서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게 됨

또한 생각만 하면 자유율법에 걸리는 고로 생각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쫓쫓 묶어 놓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걸어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어보고 허락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행동과 말이 자연스레 조심이 되며 남 보기에 머뭇거리는 것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은 바보가 되어야 가는 길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굴됁이가 매미 되는 과정과 같은 것인데, 굴됁이는 꼬투리 속에서 한동안 꼼짝 않고 죽은 상태로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꼬투리 속에서 나와 날개가 달리고, 이슬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쓴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과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마귀이므로 나의 몸을 묶어 놓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 ‘나라는 주체 의식’을 쫓쫓 묶어 완전히 바보가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사(假死)상태와 같이 죽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흘러가야 그 후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므로 변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일찍이 감정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모님도 “나 무가 되어야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격암유록 은비가에 예언된 노고산 자락의 밀실 배경과 감람나무가 춤추는 장면(Vincent van Gogh, Olive Trees 1889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와 같이 감정이 없어지기 위해서 ‘나라는 것이 노력을 해서서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죽여주시고 자유율법을 대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이제부터 나를 의식하지 말라고 하시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초초로 바라보며 고도로 사모하였습니다. 이 자유율법은 꼭 나를 의식해서만 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의식하려는 마음만 일어나도 ‘나를 의식하는 음란죄’를 범한 결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그림자 자유율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인간의 생각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 마음도 여지없이 <그림자 자유율법>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말가지 못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상태도 말가지 못하는 의심죄로 여지없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

나님께 향한 마음이 부족한 까닭에 다른 생각이 나오려고 하였으므로 가차 없이 자유율법에 걸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긴자를 세우실 때 이같이 고도의 율법으로 다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 열도(熱度)가 일초 일초 상승되어야 하나님 안에 있다가 되고 자유율법을 지켰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다 그치시니 다른 생각을 하려야 도저히 할 수 없었으므로 나중에는 오십 평생 부르던 본인의 이름도 나이드 있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아가서 어린이와 같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밀실에서 연단 받는 식구들 가운데 일곱째 천사의 나이가 제일 많은고로 일곱째 천사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와 이긴자도 조사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이 조씨라는 것은 알 것 같은데 이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 내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이름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형제들에게 물어보면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이름을 잊어버리고 일주

일 동안을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죽어지니까 자신의 이름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 그 인간적인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주체의식으로 거듭난 중생자가 되어 목시룩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썩은 피가 나오면서 이름도 잊어버리게 된 것인데, 그 썩은 피는 옛사람의 나라는 주체의식을 주장했던 마귀가 죽어서 시체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가운데, 어느 날 밤 먹으러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해와 이긴자의 큰 아들이 두 주먹을 쥐고 별안간 일곱째 천사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원래 일곱째 천사의 주먹이 무지무지하게 세기에 몸이 왜소한 해와 이긴자의 큰아들쯤은 한 대 갈기면 그대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주먹 따귀를 맞고 도 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하고 감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여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 주먹 따귀를 때린 사람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되는 해와 이긴자가 다른 사람은 집중해서 사랑을 안 하는데, 일곱째 천사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지적을 하고 나가니까 시기가 난 것입니다. 순간 화가 나서 때렸지만 일곱째 천사의 기도에 마귀가 죽으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때린 것이 부끄러워 도망가다시피 달아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떤 사람도 그런 시험에 걸리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이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해와 이긴자에게서 밀실 식구 삼십여 명을 모아놓고 일곱째 천사가 이긴자가 됐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사장이 이긴자가 됐다!”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죠?’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니까 해와 이긴자께서 즉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겼다!”
‘또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기셨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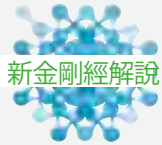
이렇게 이긴자가 되었다고 한 날이 1980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넘어진 것이 1980년 4월 초순경이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매달리기 시작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야비로소 완전히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산천조목이 이긴자의 출현에 춤을 추고 감격하였다

일곱째 천사는 ‘또 이겼다!’는 말을 들은 그날 지계를 짊어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디다. 이긴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산에 가니까 굵은 나무가 일곱째 천사를 향해서 허리를 구부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한 다음에 나뭇가지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거듭하며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풀들도 춤을 추는데 땅속에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풀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며 그 자리에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풀을 보니까 뽕혀 있는데 땅속에 뿌리를 박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긴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6000년 만에 너희들에게 영생 줄 구세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춤을 추는구나. 말은 못해도 너희들은 다 알고 있구나!”하고 일곱째 천사는 말하는 동시에 생각하기를, ‘야!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산천조목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여겼습디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일합이상분(一合離相分) 第三十 모이나 흩어지나 하나나

須菩提 수보리
若善男子善女人以三千大千世界碎爲微塵
약선남자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쇄위미진
於意云何 是微塵衆寧爲多不
여의운하 시미진중영위다부
수보리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티끌을 만든다면 너의 생각에는 어떠느냐? 이 티끌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須菩提言 甚多世尊
수보리언 심다세존
何以故 若是微塵衆實有者 佛即不說是微塵衆
하이고 약시미진중실유자불즉불설시미진중
所以者何 佛說微塵衆 卽非微塵衆
소이자하 불설미진중 즉비미진중
是名微塵衆 시명미진중
수보리가 아뢰오되, 매우 많습디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같은 티끌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곧 티끌이라고 말씀하시지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説) <53>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티끌들은 곧 티끌이 아닌 것을 이를 티끌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世尊 세존
如來所說三千大千世界 卽非世界 是名世界
여래소설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시명세계
何以故 若世界實有者 卽是一合相
하이고 약세계실유자 즉시일합상
如來說一合相 卽非一合相 是名一合相
여래설일합상 즉비일합상 시명일합상
세존이시여, 여래(석존)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곧 세계가 아닌 것을 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진실한 부처님의 세계라면 바로 하나로 합한 상(一合相)이라야 하는데, 여래(석존)께서 말씀하신 하나로 합하는 모양이란 것이 하나로 합하는 모양이 아닌 것을 이런 것을 하나로 합하는 모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須菩提 수보리
一合相者 卽是不可說



국력세계에는 생미륵불 얼굴과 똑같이 생긴 부처님들만 살기에 저절로 내 몸처럼 여겨진다

일합상자 즉시불가설
但凡夫之人 貪著其事
단범부자인 탐착기사
수보리아, 하나로 합친다(一合相) 합은(그 이치들) 바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석존)의 사람이 그 일을 욕심낸 것이니라.

[해석] 그렇습디다.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고 하는 일합상(一合相)은 말로서는 쉬워도 실제 어느 누가 어떻게 하나로 합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불도를 이룬 부처님이나 하실 수 있는 큰일인데 불도를 이루지도 못한 미완성의 석존께서 어찌 온 우주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지혜와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할까요?
우선 제일 먼저 불도를 이룬 범신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와 나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

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일”을 주장하며 또한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말로서는 무척 쉬워도 실제 행함에 있어서는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으신 어느 누구의 독자라도 쉽게 남과 나의 동화가 이루어질까요?

모두 다 그렇게 쉽게 모이는 일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나”라고 하는 이 편견과 아집에 의한 분별심과 아무 쓸모도 없는 자존심이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우월감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 함께 있기가 창피하다고 하는 수치심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예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 사회의 불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를 깨달았다면 우선 가짜의 “나”를 버리는 마음의 공부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내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버리고 남이 어느 누구든 모두 나의 스승으로 또는 주인으로 내지는 부처님으로 모시고

반드는 마음의 공부부터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생활한다고 하면 자연스레 사회에서의 불협화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합상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부처님들의 기본 사상이며 진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행하여야 할 아주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착(善)함 가운데(中)에 최고의 착함(最爲勝)이요, 이른바 제불보살(諸佛菩薩)의 10가지의 착한 법(十善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부처님만이 부처님의 행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찌 깨나 돼지가 인간의 행을 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또 깨나 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이 깨나 돼지와 같이 동물에 속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암둔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도 석존은 범부의 마음의 욕심이었기에 하나로 합하는 일을 하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明鍾